

청결한 지역민 휴식공간 조성 ‘두 팔 걷어’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, 청도저수지 합동 환경정화 행사 진행
김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·금산면 의소대·금산면 직원 등 동참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지역민들의 청결한 휴식공간을 위해 나섰다.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21일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위치한 청도저수지에서 김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금산면 의용소방대, 금산면사무소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합동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청도저수지 제방 및 둘레길을 거닐며 방치된 플라스틱 페트병, 비닐 등 약 0.5t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.

청도저수지는 전주시 인근에 위치해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,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수시로 환경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장소이다.

하인호 지사장은 “지자체, 소방서,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환경정화 행사

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21일 김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, 금산면 의용소방대, 금산면사무소 직원 등과 청도저수지에서 합동 환경정화 행사를 펼쳤다.

를 통해 저수지를 찾아오는 많은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에 합

께 구슬땀을 흘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”고 전했다.

/심정식 기자 sjs2113@dumnet

지역 06면



농어촌공 동진지사·의용소방 청도저수지 일대 정비 '구슬땀'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1일 김제시 금산면 청도저수지 일대에서 민·관·소방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행사를 진행했다. <사진>

이번 행사에는 김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금산면 의용소방대, 금산면 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.

참가자들은 저수지 제방과 둘레길을 돌며 무단투기된 플라스틱 병, 비닐류 등 생활쓰레기 약 0.5톤을 수거했다.

청도저수지는 전주 인근에 위치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주 이용되는 장소로, 꾸준한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이다. 김제=정승운기자

(5.7*14.2)cm

전북연합신문

2025년 04월 22일 화요일

종합 06면

농촌공 동진지사 '저수지 깨끗하게'

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(지사장 하인호)는 21일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위치한 청도저수지에서 김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금산면 의용소방대(대장 김태열), 금산면사무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참여자들은 청도저수지 제방 및 둘레길을 거닐며 방치된 플라스틱 페트병, 비닐 등 약 0.5톤의 생활 폐기물을 수거했다.

청도저수지는 전주시 인근에 위치해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수시로 환경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장소이다.

하인호 지사장은 "지자체, 소방서,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저수지를 찾아오는 많은 지역민들께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"며 "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"고 말했다.

김제양병대 기자
ybd3465@daum.net

(23.6*4.0)cm